

또 사고 친 강성훈…상표권 분쟁 휘말린 H.O.T.

강성훈, 대만 팬미팅 취소해 피소
콘서트 예매 티켓팅 앞두고 ‘불뚱’

H.O.T. 상표권 사용 합의 입장차
콘서트 명칭·포스터 등 사용 못해



같은 날 공연을 앞두고 나란히 암초를 만난 젝스키스(왼쪽사진)와 H.O.T.



스포츠동아DB

‘콘서트에 불뚱 뿜라’

같은 날 콘서트를 여는 1세대 원조 ‘라이벌’ H.O.T.와 젝스키스가 나란히 암초를 만났다. 두 그룹은 10월13·14일, 20여년 만에 같은 날 펼쳐지는 ‘빅매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콘서트 차질이나 팬 이탈 등을 염려해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젝스키스는 또 강성훈이 말썽이다. 젝스키스로 재결합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재결합 후인 2월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그는 이번에도 같은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강성훈은 8~9일 예정되었던 대만 팬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현지 업체에 1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

왔다. 대만의 해당 업체는 강성훈 측에 팬미팅 관련 개런티를 지급한 상태로 지난달 31일 한국 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팬들은 다른 멤버와 달리 유독 강성훈에게만 불거지는 잇단 사고에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젝스키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YG) 측은 먼저 진화에 나섰다. 팬 이탈과 이로 인해 28~29일 예매를 시작하는 콘서트에도 괜한 불뚱이 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동안 강성훈은 개인 팬미팅 등 개인 일정은 독자적으로 진행해왔음에도 YG 측은 11일 “모든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훈도 이날 뒤늦게 팬카페에 글을 올리며 “제 불찰로 젝스키스와 팬들에게 피해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O.T.도 때 아닌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년 만에 어렵게 재결합의 뜻을 모으고 콘서트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H.O.T.의 상표권을 가진 김 모씨가 상표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김 씨가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사용 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12일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H.O.T.는 콘서트 정식 명칭에서도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2018 포에버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로 표기했다. 콘서트를 앞두고 공개된 포스터나 언론에 배포하는 각종 자료에서도 공식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로고의 중간 부분은 비워져 있고, 로고의 테두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다섯 멤버들의 모습도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로 대체했다.

H.O.T.측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콘서트 준비에 매진 중이지만, 상표권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홍보 전략을 짜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협상 vs 명당 vs 안시성…한가위 ‘스크린 대첩’

‘협상’ 긴장감 팽팽한 오락영화
‘명당’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아
‘안시성’ 완성도 높은 전투신 곳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저마다 개성이 확실하고 봐야할 이유도 각각이다. 어쩌면 올해 여름 극장가보다 더욱 치열한 흥행 접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가족관객’을 어는 영화가 붙잡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겨냥해 19일 나란히 개봉하는 ‘협상’과 ‘명당’에 이어 ‘안시성’이 12일 시사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공개했다. 명절을 노리고 한달한시에 개봉하는 탓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이들 세 편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을 만큼 저마다 장·단점이 확실하다. 명절 영화답게 특경 타지를 공략하기보다 무난하게 볼 만한 이야기를 내세운 것도 공통점. 때문에 이들 세 편은 일찌감치 관객의 시선을 선점하는 일부러 초반 상영관 확보까지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손예진과 현빈의 팽팽한 대결 아래 펼쳐지는 실시간 인질극을 그린 ‘협상’,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상상력을 보낸 빈틈없는 서사에 조승우를 비롯해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명당’은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얻

고 있다. 뒤이어 공개된 ‘안시성’은 이들 영화와 차별점이 확실하다.

일단 ‘안시성’은 근래 한국영화를 통틀어 단연 완성도 높은 전투신으로 시선을 붙잡는다. 물론 그 전투신의 구성과 비주얼이 ‘반지의 제왕’이나 ‘300’ 등 할리우드 대작의 장점을 답습한 탓에 신선함이 적고 지루하다는 반응도 있다. 순제작비 185억 원 중 대부분이 전투신에 할당됐다.

사실 ‘안시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두 가지는 영화가 내세우는 전투신의 완성도, 그리고 고구려 장수 양만춘을 연기한 조인성이 역사적 실존인물을 얼마만큼 표현해냈는지에 달렸다. 조인성은 기존 사극에서 익히 봐온 장수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대적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은 채 눈앞에 닥친 20만 당나라 대군에 맞선다. 제작진이 비장미 가득한 전쟁서사 대신 ‘현대적인 체면 전투’를 택한 만큼 그에 맞춰 조인성의 개성도 확립됐다.

지금으로선 판세 예측이 쉽지 않지만 2대 혹은 3대가 함께 볼만한 가족영화로는 ‘명당’이 제격이라는 평가다. 각종 전투 게임을 즐기는 10·20대 관객의 취향에는 ‘안시성’이 어울린다. ‘협상’은 짜릿하게 즐기는 오락영화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전방위 관객을 노린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김정원 기자 won@donga.com

연예

15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진짜야? 설정샷이야?

가수 선미가 재미있는 설정 사진으로 팬들에게 재미를 안기고 있다. 선미는 한 음악방송 대기실 복도에서 자신의 댄서로부터 야단을 맞는 듯한 설정사진을 올렸다. 일부 팬들은 “무슨 일 있느냐”며 걱정을 드러내지만, 대다수 팬들은 “너무 귀엽다” “설정샷 오져요” “오늘 처음 좋아요 눌렀음”이라며 즐겁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선미 #야단 #최송 #설정샷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작품 위해 창작된 음악만 ‘OST’
기존에 있던 곡은 모두 ‘삽입곡’

흔히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OST라고 부른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도깨비), ‘유어 마이 에브리싱’(태양의 후예) 등이 드라마 인기를 업고 히트를 치기도 했다.

OST는 그러나 단순히 드라마에 소개된 곡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riginal Sound Track)의 약자인 OST는 원래 영화 필름에서 모든 소리가 기록되는 부분을 말한다. 애초 ‘사운드 트랙’이라 부르던 것이, 영화음악을 음반으로 낼 때 필름의 사운드트랙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음원임을 강조하기 위해 ‘오리지널’이란 단어를 붙이면서 관용어가 됐다. 현재는 의미가 확장돼 영화음악 음반뿐 아니라 영화음악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됐고, 드라마, 게임 등 다른 영상물의 배경음악도 사운드트랙이라고 부르게 됐다. ‘트랙’이란 단어는 영화 필름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소리를 담은 광학 띠가 육상경기의 트랙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

현재 OST는 작품에 삽입된 노래, 해당 작품을 위해 작곡된 연주곡을 의미하며, 이를 한 데 담아 발매한 앨범은 ‘OST앨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음악이 작품에 삽입됐을 때는 OST라는 표현은 올리르지 않다. 해당 작품을 위해 창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삽입곡’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 현재까지 최고 히트 OST는 1992년 영화 ‘보디가드’로, 이 영화의 OST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만 장이 팔렸다. 국내에서도 100만 장 이상 팔린 유일한 OST앨범이다. 한국 영화 OST앨범으로는 1997년 개봉한 영화 ‘집속’이 70만 장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편집 | 김청조·김대건 기자